

푸르
푸르

추곡 순간 한미평

2002년 3월 22일 (금) 하오 7시 30분
23일 (토) 하오 3시, 6시
24일 (일) 하오 3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후원 : 부산민예총
주최 : (사) 민족미학연구소, 민주공원
문의 : (051) 241-5898, 462-1016

제 8 회 신인춤제전

젊고 푸른 춤꾼 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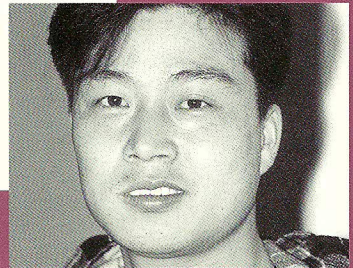
안무 : 이홍수 (신인춤 6기)
출연 : 김경복, 허인구, 이홍수

아! 정보와 멀티미디어의 홍수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일회적인 삶이여

유통기한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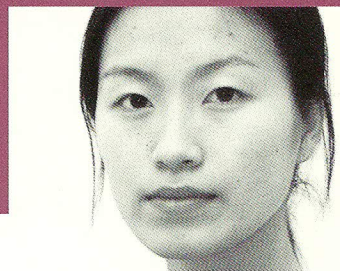
2002년 3월 22일 (금) 하오 7시 30분
23일 (토) 하오 3시

첫 마라



두 번째 마라

2002년 3월 23일 (토) 하오 6시
24일 (일) 하오 3시



심각한 환상

안무 : 김혜원 (부산대)
출연 : 김혜원

그윽한 향
유리알 피부
비누 거품이 소근거린다.

倥으로 함께 이르다

안무 : 채순희 (경성대)
출연 : 채순희

모든 것이 혼자 일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
자신만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모순을 본다.

안무 : 이선희 (경성대)
출연 : 이선희

바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
어디까지 바른 것이고
어디서부터 틀린 것인지
혼돈 속에 살고 있다.
나의 기준을 찾고 싶다.

正—혼돈

안무 : 이상미 (동아대)
출연 : 최영화, 송민경,
최우석, 이상미

하이얀 깃털, 부드러운 움직임,
백조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사실은 흑조였다

안무 : 조현영 (신라대)
출연 : 오진영, 김민경, 전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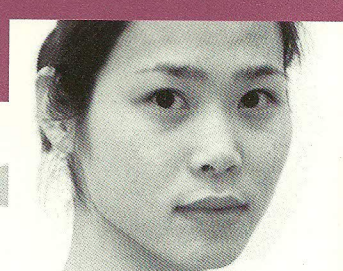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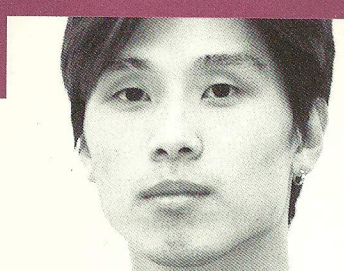
난...당신편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스런 우리 아기.
나의 행복한 하루, 또 하루.
비바람이 몰아쳐
내 전부를 삼켜버린 이틀.
그러나 내일은.
나에게 내일은.

하루, 이틀 그리고 내일

안무 : 안정민 (경성대)
출연 : 안정민

내 어깨위로 떨어진 힘겨운 무게에
쓰러져 홀로 눈물을 흘렸네.

흠친 눈물



이르다 나비타령

안무 : 김지연 (신라대)
출연 : 류혜정, 김지연

나비가 노래를 한다.
핑계거리를 인정해 달라고...

변명

안무 : 오소연 (경성대)
출연 : 권정희, 이민영,
이채연, 오소연

의상 : 권정희
무대제작 : 황경호

깨어진다
깨어진다
깨어지는 아픔들이다
흩어진 파편들만큼 산만한 머리 속에서
사라진다
허공으로 흩어진다 서정윤 '변명' 중에서

Mur Mur

안무 : 정진우 (부산대)
출연 : 정진우

증얼거린다, 꿇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러다 소리친다.
다들 알수 없다.

한 여름 밤의 꿈

안무 : 손훈용 (신라대)
출연 : 왕영숙, 손훈용

숨막이는 여름. 공원.
멀리 보이는 한 남자.
다가가고 싶다. 용기 없이
벤치에 주저앉은 나.
꿈 속의 달콤한 사랑.

안무 : 하정민 (신라대)
출연 : 최지은, 하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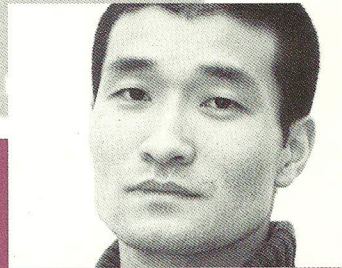
이승을 떠나가는 자의
마지막 호사스러움, 살재비꽃.
죽음의 향기를 품고
신생을 찾아가는 노래로구나.

살재비꽃

안무 : 남대우 (충권)
출연 : 김태경, 남대우

두 사람, 서로 다른 곳에서 산다.
만남, 우정,
사랑은 이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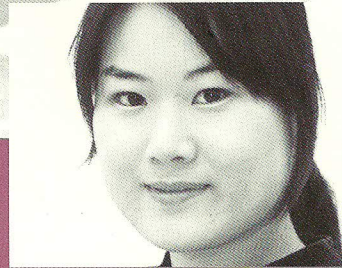
갯빛도시를 떠나서



안무 : 서지연 (부산대)
출연 : 서지연

누군가 내 안에 들어왔다.
새로운 기운이 몸 안에 솟구친다.
마구 날뛰고 싶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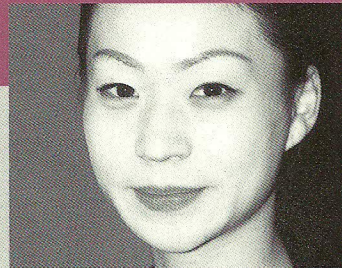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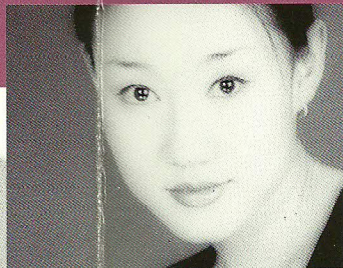
狂舞



안무 : 이준희 (신인춤 7기,)
출연 : 이준희

지하철에 있는 노란 길을
걸어보았다.
.....

빈소리



- 무대감독 최정완 (민주공원 공연프로그램)
- 조명 권성훈
- 음향 전성환
- 사진 이장수
- 디자인 김정희
- 영상 이호근
- 진행 이미화 (민족미학연구소 사무처장)
- 프로그래머 이상원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 총기획 방영미 (신인춤 2기), 허경미 (신인춤 2기, 부산시립무용단)
- 총기획 최찬열 (부산민예총 출판과 위원장)

Fever

안무 : 김연정 (신인춤 7기)
출연 : 김연정
작곡 : 김재욱
기타 : 고덕주
소리 : 박성진
무대미술 : 김현우

나는 믿는다. 안주하는 삶보다
꿈을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이 건방진 자신감을.
그것은 분명 살아있음이다.

소나기

안무 : 장수미 (신인춤 6기)
**출연 : 김세일, 박용현,
조원준, 장수미**



민족예술 현장비평모임 '신인춤제전의 진단과 전망'

3월 28일(목) 하오 7시, 민족미학연구소 공부방

주최: 부산민예총, 민족미학연구소

- 발제: 배학수 (경성대 철학과 교수), 최찬열
- 토론: 조봉권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 최정완, 허윤정, 하진숙, 송성아 등
- 사회: 서영수 (부산민예총 사무국장)

제 8 회 신인춤제전

점고

살아온 인생의 1/3 이상을 춤과 함께 해 온 사회 초년생 여러분은,

대학과정을 마쳤으니, 이제는 춤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오랜만에 스스로 다시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7, 8년이 넘도록 (찰랑거리는 시간들의 방랑과 유혹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오던 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있어 살 수 있었다고 할 그 춤이란 것이 과연 나에게 절대절명의 존재인가.

나를 키워주고 감싸주던 보호장치들은 거의 거두어졌습니다. 낯선 사회속에 나는 혼자 던져졌습니다.

내가 춤을 선택한 것은 나에게 옳았는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간다고 하지요. 온갖 가능성의 한가운데서 그것은 나에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합시다.

이제는 자문자답의 질문을 옮길 때를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가 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춤이 나를 선택하였다.’ 라고 한백년을 춤과 같이 산 마사 그레이엄은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춤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자신만의 마니페스토였습니다.

춤에 대한 더 이상의 자궁은 없습니다.

춤이 춤이기 위해서는, 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춤이 나를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한 그것은 춤에 대한 한없는 겸손입니다.

보잘 것 없는 나를 춤이 택하였으매 거기에 따를 뿐인 것이지요.

춤의 부름을 받아옴고 춤의 제단에, 가시밭길에 한 몸 모두를 바치는 것이지요. 그것은 춤의 축복입니다.

‘춤과 나’ 사이의 현신적 교류, 그것은 춤을 춤답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좁게는 춤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춤의 살(慾)에 대한 싸움입니다.

춤의 신명은 춤이 나를 택하여 살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춤의 목숨을 되살리는 첫디딤입니다.

2002년 3월 22일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채 희 완